ECONOMIC FOCUS

2026. 4. 1.

Global Macro Team

정성태 Senior Economist
sungtai.chung @samsung.com

금종호 Economist
jongho.keum@samsung.com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한국 3월 수출

전쟁 영향 아직 제한적; 반도체 수출 급증으로 '26년 전망 상향

- 3월 수출 당사 예상에 부합. 글로벌 AI 투자 확대로 반도체 수출 급증. 중동지역 영향은 석유제품 증가로 상쇄되어 아직은 제한적. 나머지 품목은 대체로 정체
- '26년 반도체 수출 증가율 120%로 추정하며, 그에 따라 연간 수출 전망도 기존 25%에서 33%로 상향. 중동 전쟁이 조기에 마무리되면 상향 조정 여지 큰 편

'26년 3월 한국 수출은 전년 대비 48.3%(861.3억 달러)로 당사(46.0%) 및 금융시장(47.3% Bloomberg 기준, 이하 전년 대비) 전망에 부합했다. 일평균 수출은 조업일수가 하루 증가한 영향으로 41.9%를 기록했다. 3월 한국 수출의 급증은 반도체(151.4%)와 컴퓨터(주로 SSD, 189.2%)가 글로벌 AI 투자 확대와 그에 따른 수출 단가 상승으로 증가율이 확대된 영향이다. 아울러, 중동의 지정학적 영향은 석유제품 수출 증가(54.9%)가 해당 지역 수출 감소(-49.1%)를 상회하면서 현실화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정유 및 나프타의 수출 제한 조치 이후 수출 물량이 감소하고 있고, 신흥국을 중심으로 경제활동 둔화 징후가 뚜렷해지고 있다.

한편, 중동 전쟁의 당사자국들은 휴전 또는 종전 의사를 내비치고 있으나, 당사국들이 내세우는 협상 조건의 차이가 커서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은 적어도 4월까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등 경기 민감 품목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반면, 반도체 수출은 경기보다는 전략적인 투자의사 결정에 좌우되어 올해 내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현재 추세를 유지할 경우 당사는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 120% 내외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다. 그에 따라 '26년 한국 수출 전망을 기존의 25%에서 33%로 상향하며, 중동 지역 전쟁이 조기에 마무리될 경우 상향 조정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석유화학 산업의 가동률 하락, 소비심리의 둔화 등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27조원 규모의 추경도 에너지 가격 상승의 영향을 완화할 것이고, 최근에는 반도체 출하 및 설비투자 전망도 높아지고 있다. 그에 따라 당사는 4월 내 협상 타결을 전제로 '26년 한국 성장률 전망을 기존의 2.3%로 유지한다. 다만, 사태 장기화 여부에 따라 성장률은 하향될 여지가 있다.

3월 한국 수출의 세 가지 특징

첫째, 반도체(151.4%)를 비롯한 컴퓨터(189.2%), 무선통신기기(43.5%) 등 주요 IT 제품의 수출이 증가세를 지속했다. 반면, 디스플레이는 반도체 가격 상승의 여파와 TV 시장 둔화로 -1.5%에 그쳤다.

둘째, 자동차(2.2%), 석유화학(5.8%), 바이오헬스(6.3%), 섬유(2.8%) 등이 (+)를 기록했으나, 조업일수 증가의 영향(대략 +6% 내외)을 감안하면 정체를 지속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이차전지(36.0%)는 고유가에 힘입어 오히려 증가율이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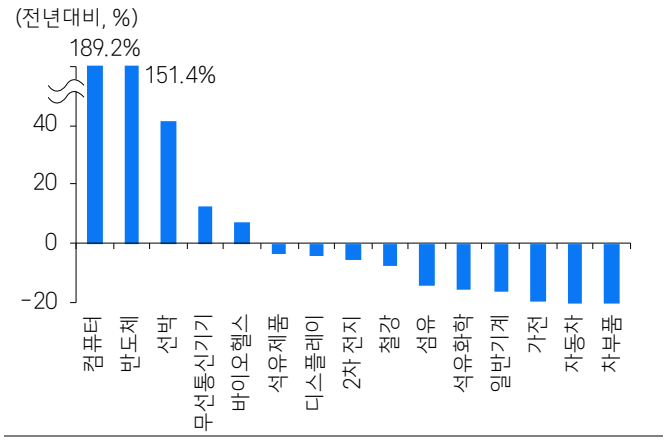
Compliance Note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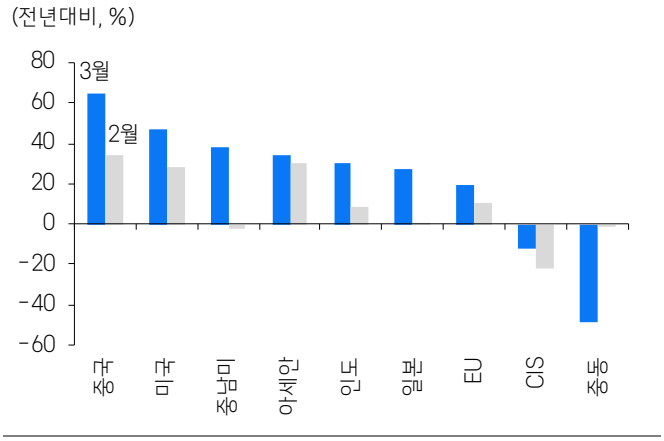
셋째, 지역별 수출에서는 중국(64.2%), 미국(47.1%), 아세안(34.3%), EU(19.3%)등 대부분이 양호했다. 다만, 지역별 수출에서도 반도체 수출을 제외하면 대체로 부진한 편이었다. 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 반도체 수출은 156.7%였으나, 석유화학은 6.8%에 그쳤다. 미국의 경우에도 반도체는 392.3%였으나, 일반기계는 -21.6%였다.

3월 품목별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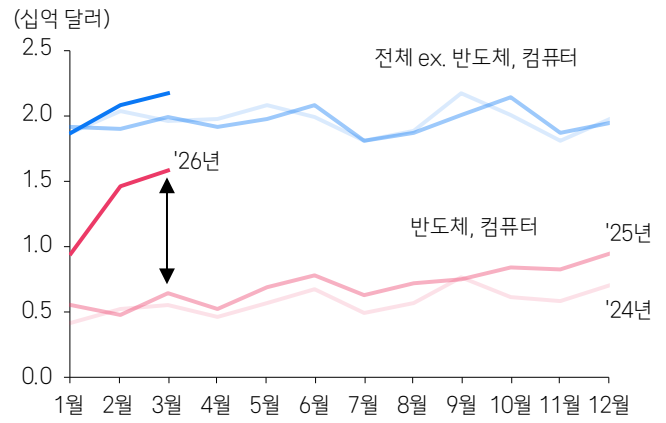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삼성증권

3월 지역별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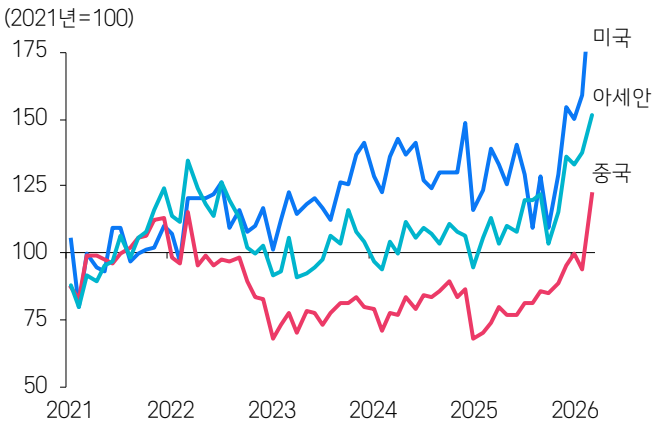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삼성증권

'26년 수출 증가는 반도체와 컴퓨터가 주도



참고: 일평균 수출 추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삼성증권

주요 지역에 대한 수출 증가세 지속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삼성증권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